

社會學碩士學位論文

지체장애인의 사회자본과 지위획득:
사회적 배제의 재조명

2006年 8月 22日

全北大學校 大學院

社 會 學 科

朴 順 榮

지체장애인의 사회자본과 지위 획득:
사회적 배제의 재조명

Social Capital and Status Attainment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 Revision of the Social Exclusion

2006年 8月 22日

全北大學校 大學院

社 會 學 科

朴 順 榮

지체장애인의 사회자본과 지위획득:
사회적 배제의 재조명

指導教授 薛東勳

이 論文을 社會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5月 15日

全北大學校 大學院

社 會 學 科

朴 順 榮

朴順榮의 碩士 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番 全北大學校 教 授 鄭 鶴 燮 ㉠

委員 全北大學校 副教授 鄭 喆 熙 ㉠

委員 全北大學校 副教授 薛 東 勳 ㉠

2006年 6月 19日

全 北 大 學 校 大 學 院

목차

Abstract	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II. 이론적 배경	4
1. 장애인의 취업에 관한 담론	4
2. 인적자본	6
3. 사회자본	7
4. 사회적 배제	13
III. 연구 방법	15
1. 종속변수	15
2. 독립변수	16
IV. 자료 분석	19
1. 직업유무 결정 요인	19
2. 임금 결정 요인	24
V. 결론 및 제언	28
참고문헌	32
부록 1. 2006년 장애인의 직업결정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37
부록 2.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	46

표 차례

<표 1> 표본조사 자료의 가중치 부여 내역	15
<표 2> 분석에 포함된 변수 측정	17
<표 3>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빈도	18
<표 4> 직업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20
<표 5> 직업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21
<표 6> 임금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24
<표 7> 임금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26

Abstract

**Social Capital and Status Attainment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 Revision of the Social Exclusion**

Soon-Young Park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ccupation is means of making collective self identity of a person as well as promoting her/his economic wealth in life. It gives a person major social status. So, what kind of job she/he get is connected directly with her/his social status. It is also a key factor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in Korea 2000, the unemployment rate of them is 28.4%. It is higher 6.8 times than that of Korean population.

This study tries to show what kind of factors make influences on getting a job of physically disabled persons. I analyzed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clas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variables. And, I focussed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mong them, and tried to show operating mechanism of the social exclu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five points. First, the labor market of physically disabled persons is divided according to gender. Male has higher level of wages than those of female. Second, the better human

capital they have, the higher level of wages they get. I adopted the severeness of their physical disability as an indicator of human capital variables. Third, apart from status attainment theory, the higher social class has adverse effects on social attainment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in Korea. Fourth, social capital with weak ties does positive effects on getting a job. However, social capital with strong ties does negative influences on getting a job. Fifth, social capital with strong ties acts to mechanism of social exclusion primarily for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

As a conclusion, role and support method of society capital with strong ties is must be necessarily reviewed as well as change of social awareness on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supplement legal and institutional repletion for accomplishes social integration and lives life that live humanly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Key words: social capital, status attainment, human capital, social exclusion, physically disabled person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직업이란 개인적 측면에서는 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써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수단이다. 또한 직업은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한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그 사회의 경제를 유지하는 근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장하며 한 두 번, 또는 여러 번 “너는 커서 뭐가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그 무엇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등 준비활동을 한다. 또한 직업을 가진 후에는 개인의 주된 활동이 직업활동이 되며 은퇴 후에도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연금을 받으며 살거나 직업활동을 통해 벌었던 돈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그렇기에 직업은 인간 삶의 중심이며, 직업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해진 환경으로 인한 사고, 질병, 의료 기술의 발전 등으로 장애인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도 직업활동 역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상시노동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시에는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고용할당제를 채택하였다. 부담금이 1996년에는 1인당 월 17만 3천원, 97년에는 19만원, 2002년에는 48만 3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도 장애인의 고용률은 여전히 증가하지 않고 있고 부담금으로 징수되는 고용촉진기금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1,449,496명이며,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8%이며 실업률은 28.4%로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4.2%에 비해 6.8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취업을 하지 않은 장

애인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46.6%이고 비경제활동 장애인 중 15세에서 59세 사이의 18여만 명은 노동시장진입전의 차별을 이유로 취업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50%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업화가 진행되며 장애의 출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체가 아닌,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의 공동체라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취업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이 장애정도에 의한 생산성, 작업능력, 장애로 인한 학력저하 등 인적자본과 법적 제도, 사회적 인식, 편의시설 부족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장애인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에 따른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장애인의 취업률이 향상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이 인적자본과 외부 환경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는 노동시장진입전의 차별이유로 취업을 포기한 장애인과 구직활동은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장애인,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간에 차이점을 조사하여 어떠한 요인이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간에는 어떠한 요인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장애인의 인적자본과 외부 환경적 요인에만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장애인의 취업문제는 고용상의 차별, 편견, 법적·제도적 보완 등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을 근거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장애인의 취업률은 상승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용상의 차별, 그리고 법적·제도적 문제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조금씩 개선될 때마다 장애인의 취업률은 높아져야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단순히 위에서 언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장애인도 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결정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결망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이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일종의 자본으로 여기는 사회자본을 중요한 변수로 상정할 것이다. 또한 취업과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사회계층을 분석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요인들이 장애인의 지위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특히 사회자본은 약한(개방적)연결망, 강한(폐쇄적)연결망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문제가 단순한 차별이 아닌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에 의한 것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취업에 관한 담론

'장애'라는 용어는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disability)' 또는 '불이익(handicap)'으로 쓰인다. '손상(impairment)'은 정신적·신체적·해부학적 구조의 손실 및 비정상을 의미하며 '기능장애(disability)'은 정상 또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 또는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불이익(handicap)'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환경의 결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뜻한다. 고프만(Goffman, 1968)에 따르면 가시성(visibility), 인지도(know-about-ness), 상호작용의 단절 정도 그리고 장애인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타인이 인식하는 점 등에 따라 오명화(stigmatization)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오명화는 타인의 오명시를 염려해서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인 내재적 오명(felt stigma)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열등할 것이라는 일반인의 인식에 근거한 차별, 즉 외재적 오명(enacted stigma) 관념에 근거한다(네틀턴, 1997).

이렇듯 장애는 단순한 능력결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 예를 들면, TV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장애인을 등장시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샘을 자극시킨다. 더불어 이러한 대중매체로 인해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장애인은 본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며 그 책임을 장애인 본인에게로 돌린다. 하지만 수많은 장애인이 경제적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인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직업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TV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처럼 성공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인 취업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유동철(2002, 2003)은 장애인의 취업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생산성과 관련된 요인인 기능제한, 교육수준, 직업훈련 중 기능제한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장애인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차별 경험과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정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분석하여 장애인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영평(1995, 1998)은 주로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주장하며 대안적 고용정책을 제시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불경기와 같이 거시적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운환(1998, 2003a, 2003b)역시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부의 방침과 방법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이 현실적이지 못하며, 고용 차별로는 노동시장 진입전 교육 등에 있어서의 차별과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서의 차별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의 투자와 고용주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차별 기준에 대한 홍보, 그리고 차별금지 법률 등을 제정할 것을 내 놓았다.

이선우(1997, 2001)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유형과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은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취업하기 어려우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비경제활동의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사별·또는 이혼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구주일 경우 취업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장애기간이 길수록 취업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능력만으로 장애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식변화에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강동욱(2002, 2004)은 장애인 노동시장의 단층구조를 학력과 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수의 중·저소득층에게 있어 단층 간 이동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의 중·하위단계에 고착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 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장애를 가지

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취업과정에서 33.4%의 차별과 임금수급 시 67.3%의 차별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이는 사회구조적인 차별이며 정부의 지원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안전장치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많은 학자들이 장애인의 고용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장애인의 취업에 관련된 이론으로는 개인적 속성이나 능력이 취업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는 인적자본이론, 사회적 문화와 관습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편견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별론, 장애인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의 존재여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 따라 다르다는 직무경쟁이론, 노동공급의 탄력성, 기업의 독점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수요독점이론 등이 있다

2. 인적자본

자본가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자본의 개념에 대한 수정으로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개념이 등장하였다. 솔츠는 노동자가 보다 나은 직업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로 인해 개인에 배태된 자본을 인적자본이라고 한다. 인적자본은 학력, 지식과 기술, 건강 등을 말하며, 이러한 인적자본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인적자본 중 학력은 직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위획득이론(status attainment theory)에서는 직업이 사회적 위계의 연속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개인들이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직업을 옮겨가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블라우와 던칸(Blau and Duncan, 1967)은 부모의 직업지위와 자녀의 직업지위를 계량화하여 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이동은 고찰하였는데, 사회이동은 각 개인의 지위획득의 결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지위획득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지위와 자녀의 직업지위는 개인적 자원, 특히 교육에 의해 매개된다고 보았다(권태환 · 홍두승 · 설동훈, 2006). 따라서 학력은 어떤 직업지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장애인의 경우 직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적자본으로 건강정도가 더 추가된다. 장애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해져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신체 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99조에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도는 직업의 획득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사회자본

최근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자들마다 상이한 정의로 사회자본을 사용하고 있으나 크게 사회자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연결망의 크기, 강도, 연결망에서의 위치,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양 등이다. 사회자본은 라우리(Loury)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인종별 소득 격차에 대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의 설명에 비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체계화하지는 못했다. 그 뒤를 이어 부르디외(Bourdieu)와 콜만(Coleman)의 연구로 사회자본의 개념이 체계화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르디외(Bourdieu), 콜만(Coleman), 그라노베터(Granovetter), 린(Lin), 포르테스(Portes)의 사회자본 개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부르디외(Bourdieu)는 사회자본을 “제도화되었건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건 상호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Bourdieu,1986). 따라서 부르디외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

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또한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2003).

그리고 부르디외는 모든 형태의 자원이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자본을 통해 개인은 경제적 자원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개인의 체화된 문화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이 드는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관련된 거래는 불확실한 책임, 불특정한 시간 그리고 상호성에 대한 거래가 배반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경제적 및 문화적 자원에 의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콜만(Coleman)은 사회자본을 사회적 환경 속의 신뢰성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의무와 기대, 사회구조의 정보유통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제재를 동반하는 규범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정의한다. “사회자본은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한다.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다. 사회자본은 그것이 없으면 이룩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Coleman, 1986) 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되며,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강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아도 되는 폐쇄적 연결망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과 같이 전유할 수 있는 사회조직에서 촉진될 수 있다. 그리고 콜만은 가족의 사회자본과 부모들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 공동체,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회구조, 그리고 공동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 간의 관계 등 가족 밖의 사회자본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여준다고 분석하여 인적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는 개인의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를 비교하였다. 강한 연대는 개인들 사이에 친밀감과 결집력은 높이지만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사회통합에는 약한 연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범주를 벗어나는, 밀도가 낮은 연결망이 효과적이라고 하여 ‘약한 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이 집단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따라 구축된다고 보아 사회자본을 획득하는 행위를 도구적 행위로 분석하였다. 특히 개인들에게 있어 연결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약한 연결망은 개인들에게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강한 연결망은 동기유발과 사회자본의 활용을 더 쉽게 가능하도록 해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업을 구하는데 있어서는 정보와 자원을 제공해 주는 약한 연결망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약한 연결망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다리역할을 하며 정치적 행동으로 조직하거나 통합하는 등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린(Lin)은 사회자본을 “도구적, 표출적 행위로서의 보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배태된 자원에 접근하려는 개인이 사용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투자”(Lin, 1999) 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에 배태되어있는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획득, 사회적 연줄을 통한 영향력의 행사, 자격의 보증, 정서적 지지와 자원의 소유권 인정 등과 같은 기전을 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도구적 행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행동이며 표출적 행위는 이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리고 린은 이민자와 소수 민족 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망 및 그 연결망을 따라 흐르는 사회자본이 핵심적인 자원임을 확인하여 ‘강한 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Strong tie)의 입장을 보였다.

포르테스(Portes)는 부르디외와 콜만이 제시한 사회자본에 초점을 두고 사회자본의 다양한 근원을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 또한 이민에 관한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자본의 작용과 그것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증명하였다. 그는 ‘개인의 합리적 추구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 콜만의 정의와는 다르게 사회자본을 “개인의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 기대”라고 재정의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부르디외의 정의와 시장 상황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포르테스는 이러한 일반성은 경험적 고찰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집합적 기대는 무엇인가’, ‘그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화시켜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회자본의 근원을 가치의 내면화(value introjection), 상호성의 교환(reciprocity transaction), 제한된 연대(bounded solidarity), 강제할 수 있는 신뢰(enforceable trust)로 보았다.

첫째, 가치의 내면화로부터 사회자본이 발생한다는 것은 뒤르켐과 베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합의된 신념으로의 사회화를 통하여 습득한 가치에 의해서 사회자본이 작동하며, 경제적 교환에서 도덕적 특성을 강조한다.

둘째, 상호성의 교환으로부터 사회자본이 발생한다는 것은 단체 연합의 동력에 초점을 맞춘 짐멜의 고전적 업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수행한 선행에 대하여 상호성의 규범에 근거한 ‘어음’의 축적으로 구성되며 개인들의 행동은 공동체의 사회적 연결망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제한된 연대로부터 사회자본이 발생한다는 것은 집단 중심의 행위를 초래하는 상황에 초점을 둔 것으로 프롤레타리아 의식과 계급에 대한 맑스의 분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국한된다. 계급의식의 출현에 관한 맑스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행동의 기전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We-ness’라는 감정의 표현에 근거한다. 집단의 다른 구성원이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타적 행위로 작동하며, 유용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에 의거하며 강제성의 근거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가치의 내면화’와 비슷하나 ‘제한적 연대’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제한적 연대는 문화적 차이와 차별에 대한 반응으로 이민자들이 언어와 문화적으로 차이가 심할수록, 그로인해서 차별을 받을수록, 주류사회로부터 탈출해서 모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을수록 집단 연대감이 강해지고 연대감에 근거한 사회자본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상황적 갈등으로부터 발생한 사회자본은 실제적 상황에 있을 때가 아니고, 과거의 습관과

문화적 기억의 재활성화에 근거한 상황의 대안적 정의를 구성하려고 할 때 연대감이 가장 강력하다.

넷째, 강제할 수 있는 신뢰로부터 사회자본이 발생한다는 것은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에 대한 고전적 구분에 근거한다. 특정한 집합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유용성을 기대함으로써 순응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집단의 구성원과 연계된 보상과 제재로 작용한다. 따라서 강제할 수 있는 신뢰는 자체의 내적 제재(sanction)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에서 발생한다. 콜만은 '사회구조의 폐쇄는 효과적 규범의 존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의 다른 형태인 신뢰(trustworthiness)를 위하여 중요하다.'라고 하여 개방된 사회구조와 폐쇄된 사회구조의 차이로서 이러한 기전을 설명한다. 강제할 수 있는 신뢰는 강하게 도구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호성의 교환과 비슷하나 사람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행동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강제할 수 있는 신뢰는 공동체의 특성에 의해서 크게 달라진다. 이민자들이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업의 기회가 많고 주류 사회와 연계되어 질 수 있다면 민족 공동체의 위력은 약해진다. 그러나 주류 사회가 그들을 차별하며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울 때 공동체의 규범과 기대는 커진다. 따라서 사회자본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신뢰는 외부로부터의 차별에 비례하며, 외부 사회에서 사회적 명성이나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안정성과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신뢰를 통한 집합적 제재의 효과는 구성원의 행동을 감시하고 이탈자를 공공연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집단의 능력에 의존한다. 즉, 공동체에서 구성원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클수록, 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발달해 있을수록 강제할 수 있는 신뢰는 강력해지며 그것을 통하여 사회자본의 양도 증가한다.

포르테스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자본의 효과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세 가지 기본적 기능을 구별하였다. '사회통제의 근원', '가족지원의 근원', '가족 외 연결망을 통한 혜택의 근원'이다. 우선 사회 통제의 근원은 제한적 연대와 강제할

수 있는 신뢰로 인해 공식적이고 지나친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회자본의 기능은 콜만(1998)이 집에만 있지 않는 아시아계 이민 출신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학교 교재를 하나씩 더 구매 숙제를 돕는다고 언급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즉 콜만이 편부모나 맞벌이 부모의 자녀보다는 양친이 모두 있는 자녀가 사회자본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 것에 영향을 받아 부모와 친척의 지원의 사회자본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족지원의 근원이라는 사회자본을 증가시킴으로서 집단의 사회적 유대와 통제라는 사회자본의 결핍을 부분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회자본의 기능인 가족 외 연결망을 통한 혜택의 근원은 가장 일반적인 기능으로 ‘약한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이라는 용어를 통해 강한 연결망에서 보다는 약한 연결망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직장을 구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한 그라노베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포르테스는 지금까지 언급한 사회자본의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자본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한다. 우선 폐쇄적 특정 집단에서는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보인다. 또한 그로인해 이차적인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직업이나 대부를 원하는 친척들에 의해 고통받는 발리의 사업가나 카톨릭이 강한 지역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여 이방인취급을 받는 Eucadoran Andres 사업가 등을 예로 들며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 그에 따른 감정과 의무에 의해서 사업의 성공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즉 공동체 연대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규범이 개인들에게 강요됨으로써 짐멜에 의해 제기된 것처럼 ‘공동체의 연대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가 발생하여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게 하며,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초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의 탈출을 저지하여 전체적으로 하향 평등화를 이룬다.

4.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배제'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으로의 진입 혹은 대상과의 교류가 차단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이웃, 고용, 자산, 소득, 주거, 교육, 기술 등의 구체적인 영역이 포함될 수도 있고, 시민권, 법 앞의 평등, 존경, 인간적 대우, 국가와 기회 등 추상적 영역이 포함되기도 한다. 사회적 배제 개념은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된다. 우선, 협의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과 개인 간, 집단과 집단 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시각이다. 광의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행위자)과 사회(구조, 제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의 해체라는 각도에서 접근하는 시각이다. 이렇듯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소외, 불평등, 차별 등의 용어와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 개념에 담겨있는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그 특성과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적 배제는 불평등과 차별이 사회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외와는 구분된다. 둘째, 사회적 배제는 힘 있는 다수가 힘없는 소수에 대해 이들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과중한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사회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소수 엘리트가 다수 대중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사회적 불평등과 구분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는 배제의 대상에게 차별과 배제를 강제하는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차별을 받는 대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부 여건에 의해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신명호 외, 2003).

그리고 사회적 배제는 각 사회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개념이 달리 규정되

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Silver, Hilary. 1994).

(1) 신자유주의적 시각: 영·미 계통의 분화(specialization)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를 사회의 통상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른바 ‘하류계급(Underclass)’에 대해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적 태도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산물로 파악된다. 따라서 도덕적 통합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2) 공화주의적 시각: 프랑스 계통의 사회적 연대(solidarity)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는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해체된 상태를 가리킨다. 사회구성원들이 전체 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일종의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사회 전체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사회구성원들을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당하는 사람은 사회구조적 모순 때문이므로 희생자로 파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3) 사회민주주의적 시각: 신베버주의자들의 독점(monopoly)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를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 과정에서 가진 자들이 못가진 자들의 진입을 통제하는 사회적 봉괴를 제도적으로 재생산해서 못 가진 자들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제약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하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는 사회권의 확장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6년 광주시 한마음장애인자립센터, 서울시립 북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국립재활원, 충북 지역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결정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원자료이다.

표본집단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지역별 지체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추출하였다. 그리고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의 남녀의 성비가 남자가 약 67.6%, 여자가 약 32.4%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표본은 남자가 73.3%, 여자가 26.9%로 전국 지체장애인 성비에 맞추기 위해 <표 1>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표 1> 표본조사 자료의 가중치 부여 내역

	모집단	표본집단	가중치	최종표본집단
남자	429,574	88	0.911069	80
여자	206,163	32	1.255315	40
계	635,737	120		120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직업의 유무와 직업이 있는 지체장애인의 임금수준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직업이 있다’ 1의 값, ‘직업이 없다’ 0의 값을 부여하여 직업의 유무를 측정하였고, 임금은 월평균 수입의 구간별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계층변수, 인적자본변수, 사회자본변수를 사용하였다.

-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성별을 가변수로 남자 1의 값, 여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 사회계층변수로는 아버지의 직업위신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트라이만(Treiman, 1997)의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standard international occupational prestige scale: SIOPS)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인적자본변수로는 장애정도와 본인의 학력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장애정도는 주관적 가치척도로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었다. 왜냐하면, 직업을 결정하는데 장애 등급보다는 실생활의 불편함 정도가 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 등급은 1, 2 등급을 받더라도 장애를 가진 부위에 따라 실생활에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것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정도는 장애인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장애정도는 가변수로 경증 1의 값, 중증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학력은 고졸 1의 값, 그 외 나머지를 0의 값을 부여한 고등터미와 대졸 1의 값, 그 외 나머지를 0의 값을 부여한 대학터미로 가변수화하였다.

- 사회자본변수로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의 수와 position generator 방법을 사용하여 주요 직업들을 나열한 후, 강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친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복수선택하게 하여 각 직업에 트라이만의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SIOPS) 점수에 10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값을 부여하였는데

같은 값을 갖는 직업을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의 값으로 부여하였다.
 이후부터 이 변수를 TSO로 표시하기로 한다.

<표 2> 분석에 포함된 변수 측정

변수	측정
종속변수	
직업의 유·무	직업이 있다 1, 직업이 없다 0
임금	월평균 수입의 구간별 중간값
독립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	
남자	남자 1, 여자 0
인적자본 변수	
장애정도	
경증	경증 1, 중증 0
학력	고등더미, 대학더미
사회계층 변수	
아버지의 직업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
사회자본 변수	친구 수, position generator

<표 3>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빈도

변수	빈도			
종속변수				
직업의 유무	0	56.3%	1	43.7%
임금	25	42.0%	175	2.0%
	75	40.0%	350	2.0%
	125	14.0%		
독립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	남자	73.3%	여자	26.7%
인적자본 변수				
장애정도	경증	38.3%	중증	61.7%
학력	초졸이하	12.9%	2년제 대졸	9.3%
	중졸	13.1%	4년제 대졸	16.2%
	고졸	47.8%	대학원 이상	.8%
사회계층 변수				
아버지의 직업	0~20점 미만	7.3%	50~60점 미만	2.4%
	20~30점 미만	12.1%	60~70점 미만	9.5%
	30~40점 미만	42.8%	70점 이상	3.6%
	40~50점 미만	22.0%		
사회자본 변수				
친구수	0명	12.6%	10~15명 미만	6.3%
	1~5명 미만	54.9%	15~20명 미만	1.8%
	5~10명 미만	20.7%	20명 이상	3.6%
position generator	0점	13.3%	10~15점 미만	16.6%
	1~5점 미만	11.7%	15~20점 미만	9.9%
	5~10점 미만	37.6%	20점 이상	10.8%

IV.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성별, 장애정도, 학력, 아버지의 직업, 사회자본 등이 지체장애인의 직업과 임금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에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직업의 유무이다. 직업의 유무는 직업이 있을 경우에 1의 값을, 직업이 없을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한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이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질적인 경우 사용되는 분석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관계와 독립변수의 수준에서 종속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이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임금을 결정하는데 성별, 장애정도, 학력, 아버지의 직업, 사회자본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중회귀분석은 변수들 간에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한 가지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1. 직업유무 결정 요인

<표 4>는 지체장애인의 직업유무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체장애인의 직업유무는 경증을 기준으로 한 장애정도($r=.270$)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학력에서는 대학더미($r=.112$)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사회자본 변수 중 약한 연결망을 나타내는 친구수($r=.008$)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강한 연결망을 나타내는 TSO($r=-.067$)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 직업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직업유무	1.000							
(2)경증장애	.270***	1.000						
(3)남자	-.001	-.112***	1.000					
(4)부의직업	-.058	.108**	-.243***	1.000				
(5)고등더미	-.010	.009	-.118***	-.128**	1.000			
(6)대학더미	.112***	.107**	-.030	.363***	-.570***	1.000		
(7)친구 수	.008***	-.088**	.145***	.191***	-.049	.078*	1.000	
(8)TSO	-.067**	.028	-.254***	.299***	-.066**	.169***	.095**	1.000
평균	.4370	.3900	.6757	38.3990	.4779	.2621	4.8804	9.3107
표준편차	.49627	.48800	.46834	14.74659	.49976	.44002	6.73035	6.73930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 2) 장애정도 가변수는 경증 1, 중증 0으로 하였다.
- 3) 성별 가변수는 남자 1, 여자 0으로 하였다.
- 4) 고등더미는 고졸 1, 그 외 0으로 하였다.
- 5) 대학더미는 대졸 1, 그 외 0으로 하였다.

<표 5>는 장애인의 직업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이다. 각 모형에 변수를 추가할 때마다 예측성공률은 증가하고 -2log 우도값(Log Likelihood, -2LL) 이 작아졌기 때문에 모형적합도는 증가하고 있다. 회귀계수를 보면 지체장애인의 직업유무에는 장애정도와 대학졸업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친구 수, TSO 변수가 중요한 요인이며, 그 중 아버지의 직업과 TSO 변수는 음의 값을 보인다.

즉, 장애정도는 주관적 판단으로 경증이라고 생각할수록 직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력은 대학원 이상이나 고졸 이하보다는 대졸일수록 직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직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위신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인 TSO값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0.427+(-0.122)X_1+0.508X_2+0.267X_3+0.996X_4+(-0.022)X_5+0.069X_6+(-0.040)X_7$$

<표 5> 직업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업의 유무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	-.038	.404(1.498) [†]	.427(1.532)
성별			
남자(X ₁)			-.122(.886)
인적자본			
경증(X ₂)		.527(1.694)**	.508(1.662)**
고등더미(X ₃)			.267(1.306)
대학더미(X ₄)		.799(2.224)***	.996(2.708)***
사회계층			
아버지의 직업(X ₅)		-.020(.980)**	-.022(.978)**
사회자본			
친구 수(X ₆)		.063(1.065)***	.069(1.067)***
TSO(X ₇)		-.035(.966)*	-.040(.961)**
예측성공률		.084	.087
-2LL	915.581	887.426	855.344
모형 x ²		58.155***	60.237***
df		5	7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 2) 장애정도 가변수는 경증 1, 중증 0으로 하였다.
- 3) 성별 가변수는 남자 1, 여자 0으로 하였다.
- 4) 고등더미는 고졸 1, 그 외 0으로 하였다.
- 5) 대학더미는 대졸 1, 그 외 0으로 하였다.

위의 식에서 상수와 X_1 , X_3 의 로지스틱 회귀계수는 유의미하지 않다.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유의미한 것만을 살펴보면, $\text{Exp}(0.508) = 1.662$, $\text{Exp}(0.996) = 2.708$, $\text{Exp}(-0.022) = 0.978$, $\text{Exp}(0.069) = 1.067$, $\text{Exp}(-0.040) = 0.961$ 이므로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장애정도가 1단위 증가하면 직업이 있을 가능성이 1.662배 높아지며, 대학더미와 친국 수가 각각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직업이 있을 가능성은 각각 2.708배, 1.067배 증가한다. 그리고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아버지의 직업위신 점수가 1단위 증가하면 직업이 있을 가능성이 0.978배 감소하며, TSO값이 1단위 증가하면 직업이 있을 가능성이 0.961배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직업결정요인에는 인적자본 변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계층변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정도를 주관적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스스로 활동의 불편함이 적을수록 일을 하는데 용의하기 때문이며, 고학력일수록 신체적인 활동을 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일 경우 직업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고소득을 보장하는 직업은 지체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어 장애인이 취업 가능한 노동시장에는 고소득을 보장하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이상의 지체장애인이 분석대상 전체의 0.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위신 점수로 본 사회계층변수가 지체장애인이 직업이 있을 가능성에 부정적인 것은, 우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경제자본을 많이 소유했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경제자본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은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아실현이라는 경제활동의 큰 목적보다는 좌절이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의 힘을 더 크게 하여 경제활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자본 변수는 약한 연결망은 긍정적인 영향을, 강한 연결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변수 중에서 친구 수로 본 약한 연결망은 직업을 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그라노베타의 ‘약한 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이 지체장애인의 구직활동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약한 연결망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 직장을 구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 중 직업이 있는 지체장애인 56.6%가 지인을 통해서 취업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직업훈련이나 특정 기관을 통해 취업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23.4%인데 반해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낸다.

가족·친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복수선택하게 하여 각 직업에 트라이만의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 점수에 10로 나누어 반올림한 값을 부여한 후 같은 값을 갖는 직업을 여러 가지 선택했는지라도 하나의 값으로 부여한 TSO값은 사회자본의 강한 연결망을 보여준다. 이러한 강한 연결망이 지체장애인의 직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이나 친지들의 보호가 사회적 안전망, 혹은 사회적 차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지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할수록 지체장애인은 사회와 단절시키고 경제적인 자립 활동을 제재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르테스는 가족지원의 근원이라는 사회자본을 증가시킴으로서 집단의 사회적 유대와 통제라는 사회자본의 결핍을 부분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폐쇄적인 집단에서는 외부에 대한 배타성으로 보이는 사회자본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가족지원의 근원이 되는 사회자본이 증가하면 가족집단이 하나의 폐쇄적 집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가족성원들에게는 지체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규범을 형성하게 되어 가족 외 연결망을 통한 혜택의 근원인 ‘약한 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 다시 말해 약한 연결망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통로를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임금 결정 요인

<표 6>은 지체장애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체장애인의 임금은 장애정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관계를 보인다. 남성을 기준으로 한 성별($r=.341$)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아버지의 직업($r=.119$)과 대학더미($r=.273$), 친구 수($r=.221$), TSO ($r=.145$)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일하게 고등더미($r=-.313$)만 유의미한 부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표 6> 임금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1)임금	1.000							
(2)경증장애	.070	1.000						
(3)남자	.341***	-.112***	1.000					
(4)부의직업	.119**	.108**	-.243***	1.000				
(5)고등더미	-.313***	.009	-.118***	-.128**	1.000			
(6)대학더미	.273***	.107**	-.030	.363***	-.570***	1.000		
(7)친구 수	.221***	-.088**	.145***	.191***	-.049	.078 [†]	1.000	
(8)TSO	.145***	.028	-.254***	.299***	-.066 [†]	.169***	.095**	1.000
평균	66.1510	.3900	.6757	38.3990	.4779	.2621	4.8804	9.3107
표준편차	53.98662	.48800	.46834	14.74659	.49976	.44002	6.73035	6.73930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 2) 임금은 월평균 급여 수준의 구간별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 3) 장애정도 가변수는 경증 1, 중증 0으로 하였다.
- 4) 성별 가변수는 남자 1, 여자 0으로 하였다.
- 5) 고등더미는 고졸 1, 그 외 0으로 하였다.
- 6) 대학더미는 대졸 1, 그 외 0으로 하였다.

<표7>는 임금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우선은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제거기준에 따라 변수를 제거하는 후진제거 방식으로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모형 1은 모든 변수를 투입한 것이다. 그리고 90%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 중 장애정도와 아버지의 직업 변수를 제거한 것이 모형 2이다. 모형 3은 학력을 가변수화 한 고등터미 또한 제거한 모형이다. 설명력은 모형1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모형 1과 2의 차이가 미미하고, F값이 29.916이며 유의도가 .000으로 모형2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형 2와 3의 설명력 차이 역시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학력을 가변수화 한 변수인 대학터미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등터미 역시 포함한 모형 2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모형 2의 회귀계수를 보면 남자를 기준으로 한 성별, 대학졸업의 학력, 친구 수, TSO 변수 모두 양의 값을 보인다. 즉, 남자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졸 이하거나 대학원 이상보다는 대학졸업의 학력일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약학 연결망의 사회자본인 친구 수가 많을수록,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인 TSO 높을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4.101 + 45.588X_1 + (-9.232)X_3 + 40.672X_4 + 1.355X_6 + 2.381X_7$$

위의 식에서 상수 값과 X_3 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하지 않다. 회귀계수가 유의미한 것만을 살펴보면, 성별의 β 값이 0.377이므로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여자보다 남자일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0.377배 높아진다. 그리고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이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 비해 대학졸업의 학력일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0.345배 높아진다. 또한 약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이 1단위 증가할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0.205배 증가하고,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이 1단위 증가할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0.233배 높아진다.

<표 7> 임금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성별						
남자(X ₁)	46.503***	.385	45.588***	.377	47.148***	.390
인적자본						
경증(X ₂)	3.476	.031				
고등더미(X ₃)	-10.576	-.093	-9.232	-.081		
대학더미(X ₄)	38.347***	.325	40.672***	.345	47.381***	.402
사회계층						
아버지의 직업(X ₅)	.035	.010				
사회자본						
친구 수(X ₆)	1.295***	.196	1.355***	.205	1.450***	.219
TSO(X ₇)	2.400***	.235	2.381***	.233	2.167***	.212
회귀상수	-5.997		-4.101		-9.914	
R ²		.326		.325		.322
수정된R ²		.311		.314		.313
R ² 변동		.326		-.001		-.004
F값		21.308***		29.916***		36.999***
F값 변동		21.308		.340		1.398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 2) 좋은직업은 월평균 급여의 중앙값으로 하였다.
- 2) 장애정도 가변수는 경증 1, 중증 0으로 하였다.
- 3) 성별 가변수는 남자 1, 여자 0으로 하였다.
- 4) 고등더미는 고졸 1, 그 외 0으로 하였다.
- 5) 대학더미는 대졸 1, 그 외 0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체장애인 역시 성별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성별의 차이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고임금을 받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학원 이

상의 고학력보다도 오히려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직업유무 결정 요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을 보장하는 전문직을 지체장애인이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직업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학력에 따른 대우를 포기하는 직업을 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지체장애인이 분석대상 전체의 0.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사회자본변수는 약한 연결망과 강한 연결망 모두 회귀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에 의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여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은 직장이 있을 가능성에서는 부정적이었으나 일단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은 가족이나 친지의 지지와 지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이 많을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약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은 지체장애인이 직업을 구하고 또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은 지체장애인이 직업을 구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직업이 있을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지체장애인의 직업의 유무와 직업이 있을 경우 임금이 사회인구학적 변수, 장애정도, 사회계층, 인적자본, 사회자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직업이 있을 확률은 장애정도와 학력 등의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높으며 사회계층은 높을수록 직업이 있을 확률이 적었다. 또한 사회자본은 약한 연결망이 직업을 구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직업이 있는 경우의 임금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적자본 중에서는 학력이 대졸일 경우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회자본은 약한 연결망과 강한 연결망 모두 임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지체장애인의 노동시장은 성별에 따라 직종이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직업을 구하는 데는 영향력이 없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 남자일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구하는 데 유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여자는 저임금, 남자는 고임금 직종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지체장애인 역시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고소득 직업을 구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미 직업이 있는 경우, 인적자본 중 장애정도는 임금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고실업률을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장애’라는 용어 중 기능장애(disability)는 나이, 성, 사회, 문화적 요인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거나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장애의 문제를 노동문제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영속적인 결손 노동력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와 산업사회에서 생산성이나 유용성, 실용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며, 현대 사회는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양질의 노동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생산력을 낮게 평가하거나 잘못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애가 고용상의 결점으로 부각되며 이것은 고용 차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관점으로 작용한다. 이

러한 편견이 작용하여 직업을 구하는 데는 경증일수록 긍정적이나 실제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을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위획득 이론에 따르면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자본을 많이 소유한 가정에서 지체장애인의 직업 활동은 더 이상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지 못하며 오직 경제활동으로만 인식되어 가족의 물질적 지원으로 직업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전통적 가족의 도덕적 규범으로 내재된 보호와 지원이 지체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화하며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넷째, 지체장애인에게 약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은 직업을 구하고 또한 이미 직업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구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 이는 그라노베터가 약한 연결망이 정보와 자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는데 더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는 ‘약한 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은 오히려 지체장애인이 직업을 구할 확률을 감소시킨다. 이는 포르테스의 제한된 연대와 비교할 수 있다. 포르테스는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We-ness’라는 감정의 표현에 근거하여 유용성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도덕성에 의거하여 집단의 다른 구성원이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타적 행위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폐쇄적 집단에서는 사회자본이 연대 비용을 들게 하며, 외부 세계와 단절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의미는 ‘We-ness’라는 감정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가족 중 지체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도덕성에 의거하여 지체장애인에게 정서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한다. 지체장애인에게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물질

적 자원에 국한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은 지체장애인과 강한 연결망 속에서 연대 비용을 지불하며 지체장애인과 외부 세계를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하면,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은 지체장애인을 사회적 위험과 차별 등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한다는 내재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그러한 보호와 지원은 지체장애인을 가족이라는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외부와 배타성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강한 연결망이 임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보호와 지원 안에서 간혀있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직업을 구한 지체장애인에게는 린이 언급한 ‘강한 연대의 강함’(the strength of Strong ties)이 적용된다. 린은 개인이 소유하지 않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행동인 도구적 행위와 이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인 표출적 행위로서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이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체장애인에게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은 정보의 획득과 영향력의 행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지체장애인에게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은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운동은 이동권 확보 운동을 시작으로 자립생활 운동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사회적 약자인 지체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특정 집단으로부터 보호받지 않고도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개인의 자아 실현과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써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수단인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직업은 인간의 삶의 중심이며, 직업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요한 직업의 성공에 가족·친지 등 혈연관계로 맺어진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은 보호와 지원이라는 강하게 내재된 사회적 규범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체장애인 역시 전체 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들의 강한 보호와 지원이 오히려 지체장애인을 사회와 해체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연대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고 말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도덕적 규범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약자에 대한 보호”가 지체장애인을 사회·경제·정체 등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을 가져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체장애인이 편견과 오명으로 차별받고 불평등하게 대우 받는 것,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문제점들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기존의 학자들이 지적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이 지체장애인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결과는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이 지체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이 개인적으로는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 부를 창출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써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의 역할과 지원의 방법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명확히 강한 연결망의 사회자본이 지체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족·친척 등의 지지나 지원 정도와 형태, 그리고 그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삶이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욱. 2002.. “한국 장애인 노동시장의 단층구조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0. pp.157-172
- 강동욱. 2004.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pp.121-1444
- 곽지영.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대상 수급 장애인의 취업 실태와 관련 요인”. 『연세사회복지연구』 10. pp31-65.
- 권태환·홍두승·설동훈. 2006. 『사회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 기든스, 앤서니. 2003.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역. 제4판. 을유문화사.
- 김기홍. 200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홍의재출판사.
- 김미옥. 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pp.99-126.
- 나운환. 1998.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문제와 과제”. 『한국직업재활학회』 8. pp.113-124.
- 나운환 외. 2003a. “장애인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7(2). pp.355-377.
- 나운환 외. 2003b.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12(1). pp.1-29.
- 네틀턴, 사라. 1997.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조효제 역. 한울아카데미.
- 노임대·이달엽. 2003. “장애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직업성공 요인 비교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13(2).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프랑스·영국·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 박병현·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 박석돈·조주현. 2004. “직업재활전문가와 고용주의 장애인고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학연구』 38(4).

- 설동훈. 1998. “외국인노동자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pp. 209-294.
- 신경섭. 2005.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지위획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명호 외. 2003.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심창학. 2001a.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프랑스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센터.
- 심창학. 2001b.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
- 안주엽 외. 2002.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 1996.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노동경제논집』 19권(1).
- 오수경. 2004. “소득보장제도의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 방안.” 『직업재활연구』 14권(2). pp225-254.
- 유동철. 2002. “장애인 실업의 원인: 생산성 또는 차별?” 『한국사회복지학』 48. pp.338-358.
- _____. 2002. “장애인 시민권 모델 구축을 위한 시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사회복지연구』 .19.
- 유석춘 외.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 이곤수. 2002. “장애인 고용정책 집행의 평가: 집행부실과 문제점 진단”. 『한국행정연구』 . 11(1). pp.144-167.
- 이봉철. 2001.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 이상욱 외. 2002.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 12(2). pp43-67.
- 이상호. 1997. “한국의 장애인과 노동문제”. 『노동사회연구』 .
- 이선우. 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권. pp.287-313

- _____. 2001.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다항로짓을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18. pp.113-135.
- 이애란. 2004. 『사회적자본이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두택 · 전리상. 2000. “장애인 고용이론과 요인에 대한 고찰.” 『현대사회과학 연구』, 11.
- 전영평. 1998. “장애인 고용 정책의 변화와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7(2). pp115-138.
- _____. 2000. “장애인 고용 정책의 논리와 전략”.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전준구. 1994. “장애인 고용정책의 시각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학회』. 11.
- 팍스, 르네이 C. 1993. 『의료의 사회학』. 조혜인 역. 나남.
- 홍두승. 1983.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 조사 연구용역 사업 보고서.
- _____. 2002.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 보고서.
- 한국보건복지부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 Alvey S. 2000. “Social Exclusion and Public Sector Housing Policy in Scot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0(5,6).
- Blau, Peter M. and Otis D.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4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Greenwood Press.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S. 1986. "Social Theory, Social Research, and a Theory of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1309-35.
- _____.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121.
- _____.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_____. 1985. "Economic Action, Social Structure and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1995. *Public Welfare Services and Social Exclusion*. Dublin: European Foundation.
- Lin, Nan. 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 22:28-51.
- _____.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and Mary Dumin. 1986. "Access to Occupation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4): 365-385.
- _____, Walter M. Ensel, and John C. Vaughn. 200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393-405.
- Pierson, John. 2001. "What Social Exclusion Means."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al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_____. 2000.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Sociological Forum* 15(1):1-12.
- _____, and Sensenbrenner, Julia.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320-1350.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ilver, Hilary.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33(5-6), pp.531-578.
- Stanton-Salazar, Ricardo D, and Sandord M. Dornbusch. 1995. "Social Capital and the Reproduction of Inequality: Information Networks Among Mexican-origin High School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68(2):116-35.
- Treiman, Donald J. 1977.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and Kermit Terrell. 1975. "The Process of Status Attain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3): 563-583.
- Turner B. 1986. *Citizenship and Capitalism: the debate over reformism*. Publisher: London.

7. 귀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항 8번으로 가시오)

7-1. (만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몇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_____개

7-2.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입니까? 모두 써 주세요.

(_____)

7-3. 귀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____시간씩__일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8.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9.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19 년

10.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미혼
- ② 기혼
- ③ 이혼
- ④ 사별
- ⑤ 별거
- ⑥ 기타_____

11.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무학	서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이상
11-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2. 귀하의 부모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분류표>를 보고,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정년 퇴직 하셨거나 돌아가신 경우에는, 현직 또는 생전의 가장 주된 직업을 적으시면 됩니다.

12-1. 아버지의 직업

12-2. 어머니의 직업

1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귀하의 희망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분류표>를 보고,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3-1. 나의 현재직업

13-2. 나의 희망직업

14. 귀하가 주로 성장한 지방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산 곳을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14-1. 행정구역

-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대전광역시 ⑥ 광주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⑰ 외국

14-2. 지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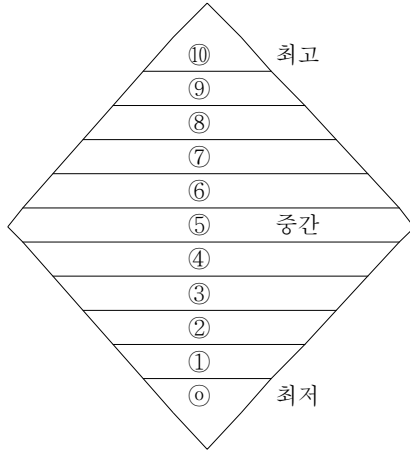
- ① 동(洞)지역 ② 읍(邑)지역 ③ 면(面)지역

15. 귀하 가족의 한달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0만원 미만 ② 50~99만원
③ 100~149만원 ④ 150~199만원
⑤ 200~249만원 ⑥ 250~299만원
⑦ 300~399만원 ⑧ 400~499만원
⑨ 500만원 이상

16. 귀하 가족의 현재 생활수준은 한국의 다른 가족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사다리에서 골라 주십시오.



17. 10년 후에 귀하가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니까? 위 사다리에서 골라 주십시오.

18.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기 집
- ② 전세 독채
- ③ 전세 방
- ④ 월세·사글세 방
- ⑤ 친척 집
- ⑥ 장애인 시설
- ⑦ 기타

19.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빌라
- ④ 연립주택
- ⑤ 다세대 주택
- ⑥ 다가구 주택
- ⑦ 장애인 시설
- ⑧ 기타

20. 다음 중 귀하의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A. 자가용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다	①	②
B. 별장이나 콘도미니엄을 갖고 있다	①	②
C. 사회저명인사(예술인·기업가·정치인 등)와 알고 지낸다	①	②
D. 업무상 국제우편물을 연간 10개 이상 받아본다	①	②
E. 박사학위가 있다	①	②
F. 외국어를 2개 이상 구사한다	①	②
G. 고등고시나 공인회계사시험 등에 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H. 전시회·공연을 정기적으로 관람하거나, 미술품을 구입한다	①	②
I.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다	①	②

21.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성 친구 명 동성 친구 명

22. 귀하의 '가족 혹은 친지' 중 다음 직업(또는 그와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해 주십시오.

- | | |
|-----------------------|---------------|
| ① 변호사(판검사·회계사·변리사 포함) | ② 전문 기술 엔지니어 |
| ③ 경영자 | ④ 기업 과장 |
| ⑤ 자영업자 | ⑥ 노동조합 간부 |
| ⑦ 교사 | ⑧ 보험설계사 |
| ⑨ 비서 | ⑩ 판매원·외판원 |
| ⑪ 사무기계 조작용 | ⑫ 하급 사무원 |
| ⑬ 조장·반장 | ⑭ 숙련공 |
| ⑮ 기계정비공·카센터수리공 | ⑯ 기계운전공·기계제작공 |
| ⑰ 경비원·순찰원 | ⑱ 웨이터·바텐더 |
| ⑲ 수위·짐운반원 | ⑳ 단순노동자·건설노동자 |
| ㉑ 농어민 | |

<직업분류표>

【전문직】

- | | | |
|-----------|-------------------|--------------------|
| (11) 의사 | (12) 약사 | (13) 변호사·판사·검사·회계사 |
| (14) 대학교수 | (15) 작가·예술가 | (16) 언론인·방송인 |
| (17) 종교인 | (18) 기타 전문직(무엇:) | |

【관리직】

- | | |
|---------------------------|---------------------|
| (21) 중소기업체 사장(5인 이상 고용) | (22) 대기업·은행간부(부장이상) |
| (23) 고급공무원(4급 시기관 이상) | (24) 사회단체 간부(부장이상) |
| (25) 군인(영관급 이상)·경찰(경정 이상) | (26) 기타 관리직(무엇:) |

【반(半)전문·기술직】

- | | | | |
|--------------|-------------------|----------|-----------------|
| (31) 교사·학원강사 | (32) 간호사 | (33) 건축사 | (34) 엔지니어(무엇:) |
| (35) 연구원 | (36) 기타 기술직(무엇:) | | |

【사무직】

- | | |
|-----------------------|----------------------------|
| (41) 중간관리직 회사원(차장·과장) | (42) 일반사무직 회사원(계장·대리·평사원) |
| (43) 중간관리직 은행원(차장·과장) | (44) 일반사무직 은행원(대리·행원) |
| (45) 사회단체 직원(과장급 이하) | (46) 일반공무원(5급 사무관 이하) |
| (47) 전화교환수·접배원 | (48) 군인(위관급·하사관)·경찰(경감 이하) |
| (49) 기타 사무직(무엇:) | |

【판매직】

- | | | | |
|--------------------------|------------------------|----------------|-------------------|
| (51) 도·소매 상점주인(5인 미만 고용) | (52) 백화점·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직원 | (53) 소규모 상점 점원 | |
| (54) 외관원 | (55) 부동산 중개인 | (56) 행사·노점상 | (57) 기타 판매직(무엇:) |

【서비스직】

- | | |
|------------------------------|---------------------|
| (61) 음식점·여관 등의 주인(5인 미만 고용) | (62) 음식점·여관 등의 종업원 |
| (63) 이·미용실, 세탁소 주인(5인 미만 고용) | (64) 이·미용실, 세탁소 종업원 |
| (65) 청소부·파출부 | (66) 수위·경비원 |
| (67) 기타 서비스직(무엇:) | |

【생산직】

- | | |
|-------------------|----------------------|
| (71) 생산감독(주임·반장) | (72) 공장근로자(숙련공·기능공) |
| (73) 공장근로자(반숙련공) | (74) 공장근로자(견습공·비숙련공) |
| (75) 막노동자·단순노무자 | (76) 고용 운전자(자동차·중장비) |
| (77) 개인택시·화물차 운전자 | (78) 광원 |
| (79) 기타 생산직(무엇:) | |

【농어민】

- | | |
|-------------------------------|------------------------------|
| (81) 부농(2정보=6,000평 이상) | (82) 중농(1~2정보=3,000~5,999평) |
| (83) 소농(0.5~1정보=1,500~2,999평) | (84) 빈농·소작농(0.5정보=1,500평 미만) |
| (85) 농업노동자·품일꾼 | (86) 축산·낙농업자 |
| (87) 선주 | (88) 어부, 수산·양식업자 |
| (89) 기타 농어민(무엇:) | |

【미취업】

- | | |
|---------------------|---------------|
| (91) 학생 | (92) 주부 |
| (93) 의무복무 군인(사병·전경) | (94) 무직(실업자) |
| (95) 정년퇴직·연금생활자 | (96) 기타(무엇:) |

부록 2.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

전문직	점수	표준국제직업분류
11 의사	78	061 의사
12 약사	64	067 약사
13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73	121 변호사
14 대학교수	78	01310 대학교수
15 작가, 예술가	57	0161 조각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16 언론인, 방송인	68	0174 프로듀서, 공연예술가
17 종교인	54	0141 종교장과 종교인 관계된 구성원
18 기타 전문직	57	019 기타 전문, 기술 관련 종사자
관리직		
21 중소기업체 사장(5인 이상 고용)	65	0211 총괄관리자
22 대기업, 은행간부(부장이상)	63	02193 대기업 부장
23 고급공무원(4급 서기관 이상)	64	020 입법공무원, 정부관리직 공무원
24 사회단체 간부(부장이상)	63	02197 상위 노동조합간부
25 군인(영관급 이상), 경찰(경정 이상)	63	10001 군 장교
26 기타 관리직	60	0219 기타 관리자
반전문, 기술직		
31 교사, 학원강사	61	013 교사
32 간호사	54	00710 전문 간호사, 간호사
33 건축사	72	00210 건축사
34 엔지니어	65	0023 전기, 전자 엔지니어
35 연구원	57	0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36 기타 기술직	57	0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사무직		
41 중간관리직 회사원(차장, 과장)	60	02192 기업과장
42 일반사무직 회사원(계장, 대리, 평사원)	43	03930 하급사무원
43 중간관리직 은행원(차장, 과장)	60	02192 기업과장
44 일반사무직 은행원(대리, 행원)	43	03930 하급사무원
45 사회단체 직원(과장급 이하)	43	03930 하급사무원
46 일반공무원(5급 사무관 이하)	43	03930 하급사무원
47 전화교환수, 집배원	44	038 전화 및 전신기 조작용
48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 이하)	40	05820 경찰
49 기타 사무직	37	0399 기타 사무원

판매직		접수	
51	도소매 상점주인(5인 미만 고용)	48	041 도소매 자영자
52	백화점,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직원	32	0451 판매원, 점원, 선전원
53	소규모 상점 점원	28	045 판매원, 점원 관련 노동자
54	외판원	28	045 판매원, 점원 관련 노동자
55	부동산 중개인	50	0441 보험, 부동산 및 증권거래인
56	행상, 노점상	24	0452 행상인, 외판원, 신문팔이
57	기타 판매직	15	049 기타 판매 노동자
서비스직		표준국제직업분류	
61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5인 미만 고용)	37	051 자영업자(음식숙박)
62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21	0532 웨이터, 바텐더 관련 노동자
63	아미용실, 세탁소 주인(5인 미만 고용)	37	051 자영업자(요식숙박)
64	이-미용실, 세탁소 종업원	30	05700 이발사
65	청소부, 파출부	20	0552 파출부, 청소 관련 노동자
66	수위, 경비원	22	55 건물관리원, 청소원 및 관련종사자
67	기타 서비스직	31	059 기타 서비스 노동자
생산직			
71	생산감독(주임, 반장)	46	0700 생산감독
72	공장근로자(숙련공, 기능공)	46	0700 생산감독
73	공장근로자(반숙련공)	43	084 기계공, 수리공
74	공장근로자(견습공, 비숙련공)	38	072 금속가공처리공
75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18	0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무자
76	고용 운전자(자동차, 중장비)	31	0985 자동차 운전자
77	개인택시, 화물차 운전자	31	0985 자동차 운전자
78	광원	34	0711 광원 및 채석원
79	기타 생산직	38	0729 기타 금속가공 처리공
농어민			
81	부농(2정보=6,000평 이상)	63	06111 부농
82	중농(1~2정보=3,000~5,999평)	47	06110 농부
83	소농(0.5~1정보=1,500~2,999평)	38	06112 소농
84	빈농, 소작농(0.5정보=1,500평 미만)	30	06113 소작농
85	농업노동자, 품일꾼	20	0621 일반 농업노동자
86	축산, 낙농업자	26	0624 가축사육노동자
87	선주	37	06411 배를 소유한 어부
88	어부, 수산, 양식업자	32	0641 어부
89	기타 농어민	14	0629 기타 농업, 축산 노동자

자료: Treiman (1977: 235-260).

감사의 글

28년이라는 짧은 삶 속에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감사했던 말이 인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 스스로도 제가 인복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는 따뜻한 휴식처가 되어주었고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었으며 저의 기쁨과 슬픔의 순간에는 진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시고 주저않고 싶은 순간 순간마다 용기를 주셨으며, 이 논문을 쓸 때 저보다 더 걱정해 주셨던 부모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전혀 관계가 없을 것만 같은 사회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남춘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인복은 석사과정에서 지도교수님이 두 분이나 계신 것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 저의 지도교수님을 맡아 주시면서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배제'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던, 현재는 정년퇴직을 하신 김영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기 교수님의 퇴직 후, 사회학과 조교였던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학문적 가르침은 물론 정서적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학과장님이시자 저의 두 번째 지도교수님이신 설동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논문 심사위원으로 많은 조언을 주셨던 정학섭 교수님과 정철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미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논문을 위해 서울에서 기꺼이 전주까지 원정을 와 주신 심경섭 선배, 항상 곁에서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도와주신 김명아 선배님과 장지혜 씨, 그리고 많은 대학원 선·후배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며 조교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심적으로 큰 힘이 돼 주었던 많은 학부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의 대학원생활과 학과 조교로서의 생활은 너무도 큰 경험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을 얻을 수 뜻 깊은 기간이었습니다.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